

## 특집/대한수의사회지 창간 40주년 기념

## 2. 대한수의사회지(大韓獸醫師會誌)의 미래

## 강 영 배

## 역사와 현실속에서

지난 1957년 12월 대한수의사회지가 「수의계」라는 제호로 창간호를 발간한지 어인 4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다. 먼저 회지발간의 역사라고도 할 수 있는 그동안의 걸어온 발자취에 관해 고찰해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 대한수의사회는 지난 1948년 10월에 당시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수의학부에서 처음으로 결성된 바 있으나 창립 초기에는 수의사의 수도 많지 않았고 사회적으로 여건이 성숙되어 있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6.25 동란 등 많은 시련을 겪어야 했던 격동기였기에 원만한 활동이 없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그 후 1956년 10월 수의사법의 공포와 시행에 따라 동법 제 24조에 의하여 중앙수의사회와 각 시·도 지부들이 창설되고, 그 다음해인 1957년 11월에는 정부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았으며, 동년 12월에 최초의 수의사 회지가 「수의계」라는 제호로 탄생하였던 것으로 기록이 남아 있다. 그 해는 마침 수의사 국가고시가 처음으로 실시되고 대한수의학회가 창립되었던 해로서 우리나라 수의학 역사상 큰 의미가 있는 해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1957년 창간 당시 우리나라의 축산업은 아직 불모지라고도 같았고, 당시 수의사회 회원도 몇분 안되는 상황이었을 터인데 그런 여건하에서도 창간호부터 짜임새가 있고 전문학술지로서의 격조 높은 내용들로 가득차 있었던 것은 참으로 자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 대한수의사회지는 1957년 「수의계」라는 제호로 창간된 이후, 1971년에는 대한수의사회지로 제호를 변경한 바 있으며, 1980년까지는 격월간 또는 계간으로 발행되었다. 그 기간중 때로는 몇년간 정간된 적도 있었으나 1981년 정부로부터 축산진흥기금의 보조를 받고부터는 월간으로 빠짐없이 발간되고 있다. 지난 1987년에는 회지 창간 30주년 기념행사와 기념특집호 발행이 있었으며, 현재까지 우리 수의사회의 공식적인 대변지로서, 우리 회원들의 지위향상과 사회에 기여하는 전문직업인으로서의 활동에 대한 홍보매체로서, 수의과학발전과 기술교육 등 다양한 면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며 성장을 지속해온 것으로 자부한다.

지금 우리는 불행하게도 이제 550억 달러 국제금융기금(IMF) 외채시대에 살게 되었다. 게다가 2001년이면 마지막 남은 수입제한 품목인 쇠고기 수입마저 완전개방화되는 시대를 맞게 될 것이다. 그동안 우리가 당연성을 부르짖으며 권익증진을 위하여 노력해오던 숙원사업 즉, 6년제 수의학교육 연장과 축산물 관리일원화의 보건복지부로부터의 농림부로의 회귀 등의 업무가 이제 모두 타결되었으며, 내년(1998년)이면 우리 대한수의사회 창립 50주년이라는 역사적인 전환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고 수의과학회관의 준공도 보게 될 것이다.

회지 창간 40주년을 맞이하여 그동안의 선배 체현들의 노고와 업적을 기리며, 대한수의사회지가 걸어온 발자취를 더듬어 보고, 이제 장년기를 맞이하여 원숙한 자세로서의 새로운 좌표설정을 위하여 앞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는 회지의 미래를 생각해보는 것은

큰 의의가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 수의사회의 설립목적 달성과 회지의 기능강화

대한수의사회의 설립목적은 정관 제2조에 정해진 대로 수의학술의 창달과 수의업무의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축산의 진흥과 공중보건의 향상에 기여함과 동시에 수의사의 권익신장과 윤리확립 및 복지향상을 목적으로 한다로 되어 있다. 한편 대한수의사회 학술홍보위원회는 수의사회 정관 제28조에 의하여 설치되며, 수의학의 학문적 기술적 발전을 위하여 학술발표, 수의사회지 발간, 수의학의 대내외 홍보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대한수의사회지의 기능을 크게 두가지로 구분해 본다면 첫째, 수의학의 학술과 기술 정보매체로서의 기능이며 둘째, 수의사의 권익을 보호하는 대변지로서의 기능으로 볼 수 있다. 그동안 주력해온 것은 첫째의 기능이며 교육적인 측면에서 전체 수의사 회원에 대하여 학술과 기술정보를 전달하여 수의사들의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여한 점으로 생각하며, 앞으로는 두번째의 기능을 보다 강력하게 수행하기 위한 방향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회지가 만일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술보급지만으로서의 사명만 수행하려면 수의사회에서는 시대적 요청에 따라 수의사에 대한 홍보매체를 한가지 더 발간해야 할지도 모른다. 예를 들어 대한의학협회에서는 의학협회지 말고도 의협신문을 발간하고 있으며, 대한양돈협회에서도 월간양돈 이외에 양돈 주간정보를 발간하고 있다. 우리도 동물방역과 위생검사에 관한 정보를 더욱 신속하게 전달해야 할 필요를 느끼고 있으며, 수의사 회원 이외에도 축주나 광고주들의 관심을 살 수 있는 대중적인 홍보용 신문을 하나 더 발간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어느 모임이나 그렇지만 회지는 그 역사를 간직한다. 그러나 결코 역사책은 될 수 없는 것이다. 기본원칙은 준수하되 의식은 지속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앞으로 수의사회지가 지향하고자 하는 기본원칙 목표는 다음과 같이 압축된다.

첫째, 합법적이어야 한다. 우리 대한수의사회는 수

의사법(법률 제4,747호) 제23조 및 동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432호) 제14조 내지 17조에 의하여 농림부로부터 설립인가된 사단법인이다. 수의사회의 모든 사업은 법률적으로 보호받고 있으며, 수의사의 행위에 대하여 사회적인 법적 책임이 있다. 그러기에 모든 사업과 행위는 합법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합리적이어야 한다. 수의학은 과학이며, 수의학에 관련된 모든 업무는 과학적인 근거가 확실하여야만 하는 것이다. 돼지가 눈을 껌벅껌벅 뜨고 있을 때는 동물이므로 수의사와 소관이요, 눈을 감고 죽은 다음에는 식품이므로 수의사의 소관이 아니다(축산물 관리일원화를 위한 법률개정안 심의 국회 본회의에서 채영석 보사위원장, 1997년 11월 18일). 이러한 비논리적인 발언에 대하여 우리는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셋째, 합목적적이어야 한다.

대한수의사회의 설립목적에 맞추어 수의학술의 창달과 수의업무의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축산의 진흥과 공중보건의 향상에 기여함과 동시에 수의사의 권익신장과 윤리확립 및 복지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이러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회지발간은 물론 학술심포지움 개최, 수의학술상 수여, 국제 학술교류, 대내외 홍보 활동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 수의사의 직업분포와 원고의 다양성 문제

1996년도 추정통계에 따른 우리 대한수의사회 회원의 직업분야별 분포현황을 보면, 총 8,806명중 많은 회원(58.3%)의 직업분류가 밝혀져 있지 않고 기타로 분류되어 있으며, 직업분류가 밝혀져 있는 회원들의 직업분포를 보면 공수의 또는 개업수의(임상수의사)가 22.3%, 행정기관 및 연구기관 공직수의사가 13.4%, 대학 등 교육기관에 3%,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3% 등으로 분포하고 있다.

그동안 대한수의사회지가 임상수의사들의 기술수준을 향상시키는데 많이 기여했다고는 보나 아직도 임상분야 기술발전을 위한 실용적인 내용이 부족하다는 점이 지적될 수 있다. 기초의학 분야는 대한수의학회지 등 여러 학회의 논문집이 많이 발간되고 있으므로 대한수의사회지만은 임상위주의 내용을 많이 취급

하도록 하여 임상전문 교수들의 강습자료를 많이 게재하고, 임상수의사들의 풍부한 임상경험을 케이스 레포트 형식으로 정리하여 귀중한 경험을 공유하도록 하는 것이 회원들에게 유리할 것으로 생각된다. 임상수의사들이 임상케이스 등에 관한 원고를 많이 보내준다면 더 바랄 나위가 없겠지만 다양한 임상 케이스도 부족하고 때로는 학술적 가치는 물론 이론적으로도 타당하지 못하여 다른 회원들에게 도움이 전혀 인정되지 못하는 원고도 볼 수 있는 것이 문제점 중의 하나이다.

원래 용어자체가 학술적으로 난해하게 되어 있는 원고를 많은 임상수의사들의 수준에 맞게 실용적으로 쉽게 글로 설명할 수 있는 집필진의 확보도 문제되고 있으며, 임상을 하시는 분들의 바쁜 시간을 할애 받기 또한 어려울 때가 많은 것으로 생각된다. 여하간 앞으로 학술홍보위원회와 편집기획실의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며, 임상에 관계되는 지면이 절반 정도는 점할 수 있도록 노력 할 것이다.

또한 수의사의 권익보호라든가 사회적 지위향상 등 수의사들을 위한 중요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축산 등 생산자 단체는 물론 소비자 단체들과의 대화와 협력을 통하여 수의업무의 영역과 수의사의 권익향상을 위한 부단한 노력이 앞서야 할 것인데, 이러한 면에서도 수의사회지의 중요한 사명이 있음을 통감하고 있다. 아울러 우리 자신들의 의식개혁을 위한 칼럼 연재도 중요할 것이다.

한편 대한수의사회지가 지나치게 임상부분에만 치중해야하는가 하는 문제는 좀 생각해볼 문제라는 의견들도 있다. 근간에 미국, 영국, 캐나다, 일본에서 발간되는 수의사회지의 내용을 보면 약 절반정도가 원저, 임상보고, 종설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회원동정과 소식, 편지 등 일반정보 전달로 구성되어 있어, 접하기에 부담이 없고 이해하기 쉬우면서 상호 정보교환을 위한 매체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으며, 새로운 수의기술의 소개와 경험을 자연스럽게 나눔으로써 회원간의 친목도모에도 한 몫을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 회지도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더 다양성 있게 발전시켜 나가고자 한다.

한편 현장의 수의사들에게 필요는 하지만 대학의 수의학과 커리큘럼에서 취급되지 않는 분야, 예를 들

면 해외 전염병 발생정보라든가, 동물과 축산물 국제 교역상의 개정법규, 야생동물, 애완동물, 어류질병, 꿀벌질병, 실험동물, 식품 및 환경분야 등 그리고 우리나라 수의분야에 전문화 되어 있지 아니한 수의안과학, 수의치과학, 수의피부과학 등의 전문적 학문영역도 넓혀가야 할 것이다. 또한 생물공학과 수의정보과학, 새로운 수의 의료장비 등에 관한 집필진도 확보하도록 하여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 해외 첨단과학과 우리나라에서 현황을 비교하는 데이터도 우리 회원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회원들의 알아야할 권리를 충족시키는데 대한 다양성 확보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자극히 한국적인 "신토불이" 회지는 가능한가?

우리나라의 수의학 교육이 서구식 교육제도로 전환된지도 이미 오래되었고, 이제 6년제 수의과대학 교육도 시작되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 수의사들이 선진외국의 수의사들과 같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또한 선진국 수의사들과 같은 사고방식을 갖고 있느냐 하는 데에는 의문이 많이 간다.

마침 내년(1998년)이면 우리 대한수의사회가 창립 50주년을 맞이하게 된다. 우리 대한수의사회가 일제의 치하를 벗어나 정치적으로 학문적으로 완전히 독립한지 반세기가 된다는 말이다. 그러면 우리는 지난 50년간의 역사 속에서 과연 완전한 독립을 성취하였는가 하는 점도 한번쯤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수의업무는 국가 중앙정부의 고유기능에 배속되어 있으며, 지원행정쪽에서 규제행정 쪽으로 전환되어 가고 있는 경향이 있다. 우리나라의 축산물 가공처리 업무도 보건복지부로부터 이제 다시 농림부쪽으로 회귀되었다. 이제는 우리나라의 수의업무도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할 수 있는 지원행정과 규제행정이 적절히 조화되도록 조정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수의업무의 공정성이 더욱 요구되는 시대이기도 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작은 정부, 강력한 정부를 표방하고 있으며, 특정부분 이외에는 공무원 수의 증원이 거의 불가능한 형편이다. 아울러 현행 우리나라의 행정체제는 부분적인 지방자치제 시대

를 맞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국가 수의업무에 대한 평가를 다시 해보고 조직개편과 기능개편을 시급히 서둘러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가장 이상적인 제도라면 국가 수의업무의 기획업무와 감독업무는 중앙 정부의 기능으로 강화시키고, 서비스 업무는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고 공영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우리 대한수의사회 회원수는 이제 곧 1만명에 도달될 것으로 예측된다. 창립 50주년을 맞이하는 대한수의사회는 1만명 회원을 대변하기 위하여 할일이 많은 단체이며, 창간 40주년을 맞이한 대한수의사회지는 논리의 개발과 학문적 기술적 발전 그리고 홍보활동 강화를 위하여 이제 1만명 수의사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이 크게 기대되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지극히 한국적인 "신도불이" 수의사회지의 개발도 생각해보아야 할 때가 된 것으로 인정된다. 그래서 수의사의 영역을 확장해나가는데 우리회지가 방향타 노릇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하여는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할 것이다. 칭찬 뿐이 아니라 어떠한 비평까지도 귀중한 원동력이 될 것이다. 칭찬만 듣고 큰 아이는 스스로 할 일을 모르는 법이다. 우리 대한수의사회지는 이런 뜻있는 창간 40주년, 창립 50주년을 맞이해서 확실한 도약의 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다만 우리 수의사회 내부적인 행사만으로는 그 의미가 작아질 수 밖에 없다. 대내외, 국제적인 홍보사업도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이러한 홍보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중요한 관건도 수의사회지에 달려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우리는 "남"이 아니다

우리나라 수의사 학위제도는 수의사 면허제도와는 관계없이 교육부가 관장하는 "교육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대학에서 수의학을 전공하여 졸업한자에게 주는 수의학사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대학원의 수의학 석사과정 이수자에게 수여하는 수의학 석사, 수의학 박사과정 졸업자에게 수여하는 수의학 박사 그리고 수의학과 연계된 다른 과정의 의약, 보건, 농업 생명과학, 자연계열 등의 석사학위와 박사학위가 있다. 그 밖에도 외국에서 받은 각종 학위를 교육부 산

하 학술진흥재단의 검증을 거쳐 인증해주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수의사 면허제도는 농림부가 관장하는 "수의사법"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의 정규대학에서 4년간 수의학을 전공하고 우리나라에서 시행하는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국가 수의사 면허를 부여해주고 있으며, 이러한 법에 의한 면허를 받지 않고는 우리나라의 동물병원 개업 등의 수의업무에 종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유사명칭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지난 11월에 대학입학 수능력시험을 치룬 내년도 입학생부터는 새로운 교과 과정에 의한 6년제 대학 수의학 과정을 마친자라야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되었다. 참으로 바람직하며 국제적으로도 우리나라의 수의사 자격을 인증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바 크다.

그러나 6년제 수의과 대학교육이 시행되는 것과 관련하여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문이 참으로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 중의 한 부문이 4년제 졸업생과 6년제 졸업생에 대한 문제 즉, 기득권층(4년제 졸업생)과 6년제 졸업생간의 인증과 차등화의 문제이다. 6년제 완전한 대학교육을 받은 후배들은, 4년제 불완전한 대학교육을 받은 우리선배들과의 차등화(differentiation)를 만들어 내기 위한 수의사의 세대차(generation gap)를 선언하게 될 것이다. 그들의 목소리는 "우리는 남이다!"라고 외쳐지게 될지도 모른다. 어떤 선배는 직장내에서 평생동안 후배 밑에서 근무할 수도 있게 될 것이며, 어떤 선배 개업수의사는 클라이언트(환축 또는 그 의뢰인)를 후배에게 빼앗기게 될지도 모른다.

현행 4년제 대학교육체제하에서 졸업하고, 우리나라 수의 업무를 각자의 직분대로 책임성 있게 수행하고 있는 많은 수의사들, 특히 졸업한지 몇년되지 아니한 초임 공직자들과 회사 초년생들, 초년 개업 수의사들, 4년제로 입학하여 군복무 등 여러가지 여건으로 휴학후 어정쩡하게 복귀하게 되는 복학생들 그리고 6년제 수의학교육이 다시 시작된 금년 이후에 졸업하게 되는 예비 수의사들에 대한 학술적 기술적 사회적 보완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4년제 수의학 과정을 졸업하고 수의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개별적인 풍부한 임상경험이나 수의 공직에서의 경험(수의행정, 연구, 방역, 검사 등), 관련 민간단체나

산업체에서의 수의업무 경험(동물약품, 사료, 축산식품 검사업무 등 서비스)을 학술적으로 보완해주고 검증해주어 전문직으로서의 권위를 추가적으로 부여해주는 연계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이들 4년제 대학 졸업생들에 대한 선도적 책임은 이미 졸업하여 사회에서 확고한 자리를 잡고 있는 선배들의 몫이며, 다시 말하면 공적으로는 우리나라 수의사를 법적으로 대표하고 있는 대한수의사회의 몫이라는 말이다. 예를 들면 대한수의사회의 부설기관으로 단설 "수의전문대학원"을 설립한다든지 기존의 수의과대학의 대학원과정과 연계하여 "특수대학원" 과정을 개발한다든지, 현행 법률상으로 허용되는 범위를 고려하고, 미비한 점을 보완 개정하여 법률상으로도 하자가 없는 전문수의석사학위 제도 또는 전문수의사 공중제도의 도입을 구상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면의 성공적 업무개발과 수행을 위하여는 정책기획위원회, 교육연구위원회, 수의무위원회, 법제윤리위원회 등 대한수의사회 산하 각 위원회와의 업무협의를 거쳐 학술홍보위원회가 많은 역할을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전환기에 처해 있는 수의인력의 원만한 업무조정과 4년제 수의사 기득권층에 속해 있는 회원들에 대한 각별한 관심없이 6년제 대학수의학 교육연장의 참다운 의의가 퇴색될 것이다. 우리는 결코 남이 아니다. 더불어 사는 사회의 기반조성이 필요한 때인 것이다.

### 정보화 시대의 흐름을 따라야

수의학의 역사를 살펴보면 1872년 세계 최초의 수의학교가 프랑스의 리옹(Lyon, France)에 설치된 이래, 마치 회전목마(Merry-go-round)와도 같이 군진의학(Military Medicine)으로부터 생명공학(Biotechnology), 정보과학(Information Science)에 이르기까지 시대를 따라 변천된 것을 볼 수 있다. 즉, 전쟁무기로서의 말(Equine Medicine)을 대상으로한 군진의학(Military Medicine)시대를 지나, 식량자원으로서의 소(Bovine Medicine), 돼지(Swine Medicine) 등을 대상으로한 축산(Animal Production) 또는 산업동물의학, 개(Canine Medicine) 등을 대상으로한 반려동물(Companion An-

imals)의학, 인수공통전염병(Zoonoses) 관리를 위한 공중보건학(Public Health) 그리고 비교의학(Comparative Medicine), 수의경제학(Veterinary Economics), 국제교역/검역(International Trade) 관련사항, 근래에는 수의생명공학(Veterinary Biotechnology)의 첨단과학 시대, 수의정보과학(Veterinary Information Science)의 최첨단 시대에 살게 되었다. 그에 따라 지금은 우리 수의사의 의식전환이 필요한 때이기도 하다. 변해야 산다. 변하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말이다. 즉, 개념(concept)이 바뀌어야 한다는 말이다. 아니, 그냥 싫어도 피동적으로 할 수 없이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능동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아니된다는 말이다. 그것도 가장 빠른 속도로...

오늘날 통신홍보 수단의 급격한 발달과 함께 전자우편의 시대가 이미 열렸다. 편지는 이제 "사연의 보따리" 시대를 떠나 "감성작품"으로 변하고 있다(중앙일보, 1997년 12월 7일자). 우리 대한수의사회지도 이제는 E-mail 또는 Internet 시대에 걸맞는 전자출간 잡지로 변모하게 될 것이다. 초고속 전산망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변해야 한다.

지금은 모두 개발도상국가(developing country)라는 용어만을 쓰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저개발국가(under-developed country)라는 의미를 가진 나라들의 특징은 언제나 계획안만 난무할 뿐, 실행이 없다는 점인데 경제적인 선진국(developed country)들의 국제협회의체인 경제개발협력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에 가입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떠한가.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보아야 할 것이다. 계획안만 풍성할 뿐 실행은 부족하지나 않은지?

### 개념의 재정립과 일신일일신 우일신 (日新日日新 又日新)

흔히 수의학(獸醫學, Veterinary Medicine)이란 무엇인가? 에 대한 답변으로 "동물의 질병(the diseases of animals)을 진단(diagnosis), 예방(prevention), 치료(treatment)하는 학문이다" 라고들 말한다. 여기에서 질병이란 동물의 건강하지 못한 상태(ill-health) 즉, 병인병리학적 경과(etiological and pathological process), 기형

(defect) 그리고 무능력(disability)을 말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수의학을 인간을 제외한 동물만을 위한 학문으로 잘못 알고 있는데, 수의학은 동물의 질병을 대상으로 삼고는 있지만 수의학의 궁극적인 목표는 인간의 복지향상이라는 점을 반드시 명심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하여는 농장에서 식탁까지(산업동물), 더불어 사는 사회(애완동물), 생명공학의 기반(실험동물), 환경보전형 수의학(야생동물) 등에 관련된 분야가 더욱 연구되어야 할 것이며, 인수공통전염병에 대한 방제대책 수립이 수의분야의 차원에서 완벽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대한수의사회지 창간 40주년을 맞이하여 회지발간과 학술홍보활동에 관한 생각들을 두서없이 적어 보았다. 이번호로서 금년도의 마지막 회지로 가름하고자 하며, 내년도부터는 좀더 새로운 모습의 대한수의사회지가 출간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머지않아 대

한수의사회 학술홍보위원회의 모임을 갖고, 대한수의사회 창립 50주년 기념행사를 위한 학술홍보 강화계획 수립과 수의사회지의 편집계획안에 대한 세부작업을 추진하게 될 것이다.

우리 수의사들이 추구하고 있는 수의학의 미래는 동물 종합의학으로서의 본래의 수의학 발전은 물론 인간의 행복추구와 육구충족을 위한 광의의 수의 사회학의 발전과 국제화 시대에 살고있는 우리나라 수의사의 지위향상과 친목도모를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날마다 날마다 새로운 도전(日新日新 又日新)을 감히 이루어내어야 할것으로 생각한다. 지난 40년 동안 대한수의사회지 발간을 위하여 노력해주신 선배 학술홍보위원들의 노고에 머지않아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회원 여러분의 더 많은 참여와 지도 편달이 있으시기를 기대한다.

## 하부호흡기 질환이 의심되는 개에서 기관흡입물의 미생물학적 연구

*J Am Vet Med Assoc*, 210 : 55~58, 1997.

본 연구는 하부호흡기도에 질환이 의심되는 개에서 가장 많이 분리되는 균과 이러한 균에 대한 항생제 감수성 검사의 결과를 평가하기 위해서 실시하였다.

병원에 내원한 하부호흡기 질환에 대한 임상증상이 나타나는 264마리의 환축에 대해 기관흡입물을 뽑아서 검사를 실시하고 세균배양(혐기와 호기성 미생물)과 감수성 검사(호기성 미생물)의 결과를 분석했다.

세균은 264마리중 116마리(44%)의 샘플에서 분리되었고 203개의 세균종이 밝혀졌다. 샘플의 대부분(57%)에서 단일종류의 세균이 분리되었으나 나머지 43%에서는 복합감염으로 밝혀졌다. *Enterobacteriaceae* (특히 *Escherichia coli*)는 45.7%이고, *Pasteurella* 는 22.4%, 편성혐기성 세균(21.6%),  $\beta$ -hemolytic *Streptococcus* (12.1%), *Bordetella bronchiseptica*(12.1%), nonhemolytic *Streptococcus* / *Enterococcus* 종류(12.1%), coagulase-positive *Staphylococcus* (9.5%)와 *Pseudomonas* (7.8%)는 각각 이러한 비율로 분리되었다. 호기성 미생물에 대해 가장 저항성(90% 이상)이 강한 항생제는 amikacin, ceftizoxime sodium, enrofloxacin과 gentamicin sulfate였다(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내과학교실 문두환).